

보고 듣고 해보고... 강진만 갈대밭에서 추억 쌓기

13~22일 생태공원서 갈대축제
'무료 신청' 하루 3회 생태 탐험
'황금 갈대' 찾으면 지역상품권
가수 공연·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콘텐츠 다채



강진만 갈대밭에서 오는 13~22일 '강진만 추추는 갈대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축제가 열린 갈대밭을 방문객들이 거니는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강진만 추추는 갈대축제'를 열어 가을 답사 1번지' 위상을 찾는다.

갈대축제는 이 기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기획, 체험, 공연, 전시, 부대행사 등 총 5개 분야 46개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11개 행사가 더 늘어났다.

강진군은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0개 축제의 마침표를 이변 갈대축제로 찍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갈대숲 탐험에 나서는 '갈대로드'가 가장 눈에 띈다. 유치원·초등학생들은 갈대로드 행사에서 '갈대숲 생태 탐험대'로 변신한다.

강진군은 사전·현장 신청(무료)을 받아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20분, 오후 3시 30분 하루 세 차례에 걸쳐 탐험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모자와 조끼 등 탐험 전용 의상을 빌려준다.

자연생태 해설사는 강진만의 역사와 가치를 재치 있고 생생하게 전달 예정이다.

강진만 갈대밭은 밤이면 대형 은막으로 변한다. 강진군은 이번 축제에서 갈대밭을 배경 삼은 '갈대숲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선보인다. 갈대밭 곳곳에는 축제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음악이 흐를 예정이다.

가로 20m·세로 20m 규모 '종이 미로 탈출'과

'숨은 황금 갈대 찾기' 등 방문객들의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갈대밭에 숨은 '황금 갈대'를 찾는 일일 10명에게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준다.

방문객들은 갈대로 만든 '갈대 모자 패션쇼'에 참여할 수 있고, 이색적인 식과 마임을 즐긴다.

이 밖에도 '갈대축제 상징 디지털 문신'과 '추억의 놀이 '에어바운스' '어린이 예술 공연' '인형극' 등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축제 개막날 공연은 13일 오후에 열린다. 가수

박재정, 비비지 등이 무대에 선다.

이튿날 오후 3시에는 신예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열린다. 축하 무대에는 문화희, 이용, 진시몬, 유지나 등이 나온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인기 작곡가 겸 가수 정의승과 함께 하는 국악 공연이 열린다.

21일 열리는 '레전드 가요대전'에는 조성모, 민해경, 김범용 등이 출연한다.

강진지역 음악인들은 16일부터 19일까지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무대를 꾸민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강진만 가을 국화전시, 대형 조형(LED) 연날리기, 강진만 세계 사진전시, 강진 관광 시화전 등도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진다.

강진군은 행사 기간 지역 농업인·소상공인과 협업해 향토음식관, 강진명품 청자판매관, 강진 농특산물 판매관, 강진 명품 한우 판매관 등을 운영한다.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은 강진군으로부터 양산과 휠체어, 유모차 등을 빌릴 수 있다. 축제장에는

구급차와 안전 요원이 고정 배치된다.

강진군보건소는 18~20일 사흘간 건강박람회를 열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홍보와 견기 행사를 벌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축제는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강진만의 아름다운 갈대밭을 배경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갈대축제로 더 많은 분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시민의 상' 수상자 없어 8년만에 공석

공적심사위 회의서 결정

'나주 시민의 상' 수상자가 8년 만에 공석으로 남는다.

나주시는 최근 2023년도 나주 시민의 상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올해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의 상 수상자가 없는 해는 1996년 상훈 도입 이래 6번째이자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시민의 상에서는 지역개발·사회복지·총후도의·산업경제·교육문화 등 총 5개 부문에서 6명의 후보자가 추천을 통해 접수됐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기준·후보자 설명, 공적검증단 활동 보고, 위원 간 토론 및 투표 절차에 따른 수상자 결정 순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후보자별 추천 대상 적격 여부와 해당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등을 위해 민간공적검증단을 구성했다.

이후 사실 여부를 가리고 현지 여론을 수렴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올해 시민의 상 수상자가 없어 아쉽지만 12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훈인 만큼 엄격한 심사 결과가 적용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시민의 날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한국과 일본 학생이 충돌했던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나주 시민의 상은 지난 1996년 첫 상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38명의 수상자를 발굴해 역대 수상자들의 공적을 영구 기록·보존하는 등 공로를 공식 예우하고 있다.

올해 29회를 맞는 나주 시민의 날 기념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시민의 상을 제외한 효행상·선행상, 분야별 유공 표창 등 시상과 더불어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의 계기가 됐던 나주학생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나주=송원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장흥군 "토요일도 농기계 빌려드려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14일~12월 2일까지...일손 부족·고령화 대응



14일부터 12월2일까지 토요일 운영을 확대하는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2월2일까지 토요일에도 농업기계를 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점 78기종 195대, 남부사업소 63종 147대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 기준 농기계를 2500건 빌려줬다.

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총 7000만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농기계를 빌리려면 작업 하루 전에는 임차-예약

을 해야 한다.

기계를 처음 빌리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임대사업소(본점 061-860-6560, 남부 061-860-6570)를 방문하면 된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문을 열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농촌 일손 부족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주말 운영을 확대한다"며 "임대사업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비를 현대화해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무취재본부장 kykim@

장성 '백련동 시골밥상' 외식업체 콘테스트 우수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 외식업체 콘테스트'에서 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장성군은 지역 음식점인 '백련동 시골밥상'이 농촌융복합 외식업체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기반한 특색 있는 지역식당이나 음식점을 선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문화재, 자연 등 농촌이 가진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백련동 시골밥상은 편백숲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과 지역 농산물을 만든 시골밥상을 선보이고 있다.

농촌융복합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도시민 방문을 이끌고 있다.



농식품부가 최근 연 '농촌융복합 외식업체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은 장성 '백련동 시골밥상' 관계자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농촌융복합 외식업체 수상이 장성 농촌융복합산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성군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국도비 포함 2억2000만여 원을 투입해 지역 인증업체가 생산한 체험 활동 건강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택시 기본요금 4000→5000원

4년만에 1000원 인상...군 "유가 상승 등 경영 악화에 불가피"

화순군의 택시요금이 4년여 만에 1000원 인상된다.

화순군은 최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금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km까지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키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본요금 거리 이후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화순군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적용 시기는 다음달 9일부터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1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전남 택시 운임·요금 적용 기준'을

인상을 19.75%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화순군은 최근 유가와 인건비 상승,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악화 기증으로 택시 운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물가안정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 국향대전 손님맞이 분주

20일 개막...대형 꽃탑 조성

함평군이 오는 20일 개막하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장에 국화 화분 4000여 개가 들어간 꽃탑(사진)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꽃탑은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주제관 앞에서 만날 수 있다. 지름 10m·높이 14m 규모로, 쑤나무·희망나무로 이룬 지은 조형물 2개를 조성했다. 대형 꽃탑 조성에는 현애국 화분 4000여 개가 들어갔다.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나를 위한 행복 여행(in) 함평 여행'을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엑스포공원과 함평을 시가지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군은 국향대전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 쑤나무·희망나무와 함께 야간 경관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